

트렌드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면 '밈'(meme)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밈은 유튜브, 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콘텐츠를 패러디하며 공유하는 놀이문화를 뜻한다. 별다른 설명 없이 '특' 넘겨도 상대방이 곧바로 이해할 만큼 유명한 사진이나 영상, 신조어를 가리킨다. 올해 온라인을 달군 대표 밈을 통해 연예계 트렌드를 다시 되짚었다. 아래 소개하는 밈만 익히도 연말연초에 있을 각종 '랜선 모임'에서 '인싸'(인사이드)가 될 수 있다. 이 중에는 '케이(K) 콘텐츠'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해외 누리꾼도 열광시킨 '케이 밈'도 있다.

“암 온 더” 나오자마자 디근춤? 야, 너두 인싸!



올해 인터넷 세계를 주름잡은 밈(meme)은 연예계에서 두루 탄생했다. 1. 걸그룹 에스파 노래 '넥스트 레벨'의 디근(디) 춤. 2.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유행어 제2기인 '1번 참가자' 오영수. 3.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댄서들이 유행시킨 '헤이마마' 춤. 4. 개그맨 김해준의 '부캐'(제2의 캐릭터) 카페사장 최준. 5. 방탄소년단 진의 메가 히트곡 '슈퍼참치'이다. 사진출처 | 에스파-김해준-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사진제공 | 넷플릭스-엠넷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어!”
올해 세계를 휩쓴 밈은 역시 인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속에서 나왔다. 수많은 명장면과 유행어가 세계 곳곳에서 패러디됐지만, 밈의 세계 최강자는 따로 있다. 이정재도, 정호연도 아닌 바로 '1번 참가자' 오영수이다. 게임 참가자들이 서로를 공격하자 높게 쌓아 올린 침대에 올라가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어!”라고 외치는 장면은 한 번쯤 따라 해 봤을 법하다.
연기력이 필요하다. 허스키한 목소리로 공포에 질린 표정을 더해야 비로소 밈이 완성된다. 실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오영수가 높은 세트장에 겁이 나 절로 연기했다는 비화도 되새기면 더욱 효과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굳이 연말연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쳐보자. 조금은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

●출근도 정치인도...너도나도 '헤이 마마'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전국에 춤 열풍을 몰고 온 바로 그 춤, '헤이 마마'(Hey mama) 음악에 맞춰 온몸을 신명나게 흔들던 '언니들'의 때 춤 영상 말이다.
댄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댄스팀 '웨이비'의 리더 노제가 서바이벌 미션을 위해 짠 안무가 '대박'을 터트렸다. 춤뿐만 아니라 2014년 발표된 다비드 게타의 곡 역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도배했고, 이제는 곡의 도입부만 흘러나오면 자동으로 춤 동작이 나오는 '국민 율동'이 됐다.
'춤 좀 춘다'는 가수들도 너도나도 '헤이 마마' 춤을 따라해 챌린지 열풍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대선 주자들도 체조에 가까운 동작을 선보이며 춤을 따라하고 나섰다. 덕분에 안무를 짰 노제는 “광고를 팔라 촬영”하는 10억원대의 'CF 퀸'으로 우뚝 섰다.
놀라운 사실 하나, '헤이 마마' 춤이 아무리 대히트

‘오겜’ 오영수 “우리 다 죽어”...표정 관건 ‘헤이 마마’ 도입부만 나오면 몸이 저절로 최준 “어? 예쁘다”...그윽한 눈빛 포인트 백신으로 더 유행한 넥스트레벨 ‘디근춤’ BTS 진 ‘슈퍼참치’ 제2의 아기사어 탄생

를 쳐도 안무 저작권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노제는 '1원'도 받지 못했다.

●최준...“어? 예쁘다”
앞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쓸어 넘긴 '침뿔머리' 모양을 한 남자가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 공회진, 이성경 등 톱스타를 비롯한 몇 여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카페 사장 최준으로 개그맨 김해준의 부캐(제2의 캐릭터)이다. 1월 유튜브 계정 '김해준'을 통해 최준의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내놓으면서 화제몰이를 시작했다. 소개팅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는 컨셉이다.
온라인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어? 예쁘다”이다. 그윽하게 상대방을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게 포인트다. 여기에 나지막하고 느긋한 말투는 애교이고, 코가 막힌 듯 멍멍한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행동은 덤이다. 심박자를 고루 쉼표가 최준의 치명적인(?) 매력에 따라 할 수 있다. “절이 없었죠, 커피를 좋아해서 유학 갔다는 게”라는 유행어도 있다. ‘유학파’라는 장점을 은근슬쩍 강조하는 화법이다. 꼭 어필하고 싶은 자랑거리를 내보일 때 쓰기 좋다.

●‘넥스트 레벨’...디근(디) 춤
걸그룹 에스파가 5월 내놓은 노래 '넥스트 레벨'의 포인트 안무다. 팔을 디근자 형태로 만들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치켜 올려 추는 춤이다. 유연성이 없으면

일그러진 디근자가 만들어지니 주의가 필요하다. 후렴구인 “암 온 더 넥스트 레벨, 예”(I'm on the Next Level, Yeah)의 노랫말이 나올 때 “넥스트”라는 단어에 맞춰 디근자로 팔을 꺾어주면 된다.
중독성 있는 노래와 안무가 인기를 끌면서 태연, 바다 등 선배 가수들뿐 아니라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패러디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밈은 더욱 진가를 발휘했다. 백신을 접종한 팔의 통증이 심해 디근 춤을 추지 못한다는 후기가 온라인상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백신을 맞고 디근 춤을 출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SNS에 수없이 올라왔다. 백신을 맞고 디근 춤이 취진다면 그때가 바로 몸이 완전히 회복한 순간이다.

●‘제2의 아기사어’...BTS급 ‘슈퍼 참치’
‘참치 한 마리’가 전 세계의 아기사어들을 비롯해 여성 팬들까지 사로잡았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자신의 생일(4일)을 맞아 팬클럽 아미를 위해 무료로 공개한 ‘슈퍼 참치’가 ‘슈퍼 메가 히트곡’이 될지 아무도 몰랐다.
각종 유튜브에서는 ‘슈퍼 참치’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대형 ‘참치’와 각자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배에서 참치를 잡는 모습 등을 패러디해 저마다 놀이에 흠뻑 빠져있다.
호기심을 끄는 것은 진이 대놓고 “퀄리티 낮은 B급 감성의 노래”를 담아 “부끄러움은 내 몫”이라고 했던 ‘슈퍼 참치’가 최근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고의 대기록을 썼다. 유튜브 등 각종 SNS에서 춤을 따라하는 ‘챌린지 열풍’을 넘어 케이팝 솔로가수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월드뮤직어워드(World Music Awards)에 따르면 ‘슈퍼 참치’는 공개 후 16일 동안 ‘전 세계 유튜브 음악부문 인기 동영상’(월드와이드 유튜브 뮤직)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선배 가수 사이의 기록도 깼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탈세 논란 양준일, 병역기피 의혹까지 불거져



가수 양준일이 최근 탈세,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병역기피 의혹까지 불거졌다. 29일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A씨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을 최근 병무청에 접수했다. A씨는 “양준일은 (병역 의무를 하는)한국사람이 된다는 조건으로 6개월마다 갱신 비자를 받아 한국 활동을 한 것이고, 국적회복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국국적을 버리지 않아 한국비자갱신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교포 양준일은 1980년대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미국과 대한민국 이중 국적자가 됐다. 이후 한국 국적 포기과 회복, 재차 포기 등을 반복했다. 양준일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병무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KBS2TV '임영웅 쇼' 오늘 스페셜 방송



트롯트 가수 임영웅이 16%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KBS 2TV '위아 히어로 임영웅(We're HERO 임영웅)' 스페셜 무대로 시청자들을 다시 찾는다. 29일 소속사와 KBS에 따르면 '임영웅 쇼'는 30일 밤10시40분 스페셜 방송한다. '임영웅 쇼'는 애초 재방송과 VOD 등으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번 스페셜 방송은 본 방송을 보지 못한 팬들을 위해 공개하기로 했다. 본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 마음 별과 같이' 등의 무대도 새롭게 선보인다. 임영웅은 방송 후 관련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역사 논란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청년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세계시민선언)이 '설강화'의 제작사 JTBC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드라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드라마는 새해 1월1일 정상적으로 방영된다. 1987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인기부 캐릭러 설정 등으로 민주화운동 궤의 의혹을 받았다.

김호중,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 기소유예 처분



트롯트 가수 김호중이 불법도박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경수)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을 전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김호중은 과거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글이 올라와 의혹을 받았다. 당시 소속사를 통해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사이트에서 3만~5만원 사이 베팅을 했다”며 “처음에는 불법인 걸 몰랐고 이후 알면서도 몇 차례 더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기부퀵' 신민아, 발달지원학회에 1억원 전달

스타들의 선행이 잇따르고 있다. 배우 신민아와 유재석, 유희열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안테나가 1억원과 10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신민아는 최근 한국발달지원학회에 1억원을 전달했다. 앞서 화상재단에 1억원, 서울아산병원에 1억원 등 총 3억원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안테나도 카카오투V 예능물 '더데이TV : 우당탕탕 안테나'에서 진행한 '슈퍼세가지수 뭐하니 가요제' 우승 상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재단에 전달했다. 저소득 가정 아동과 청소년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